

朝鮮時代 宮中 書畫收藏處에 대한 연구*

A Study of the Repositories for the Paintings and Calligraphy
in the Palaces of the Joseon Dynasty

황 정 언 (Hwang Jung-yn)**

◁ 목 차 ▷

- | | |
|----------------------|--------------|
| 1. 서론 | 3.1 서화수집과 보관 |
| 2. 조선시대 궁중 서화수장처의 건립 | 3.2 收藏目錄의 작성 |
| 2.1 15세기~16세기 | 4. 결론 |
| 2.2 17세기~19세기 | <참고문헌> |
| 3. 조선시대 궁중의 서화수집과 관리 | |

< 초 록 >

본 논문은 조선시대 궁중 서화수장 연구의 일환으로 書畫收藏處 건립의 역사적 변천과정, 수장품의 수집과 관리에 대해 조명한 것이다. 15·16세기에는 眞殿을 제외하고 일반 서화를 위한 수장처에 대한 건립이 저조하여 서책보관을 위주로 한 궁중 도서관의 기능에서 분화되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內帑庫와 왕실문서를 보관한 隆文·隆武樓, 校書館 등 특정 전각이 그 기능을 대신하였다. 그러나 17세기 숙종년간을 기점으로 수장처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어 어필을 奉安한 여러 尊閣과 그림축자를 보관한 淸防閣이 설치되었다. 19세기에 건립된 承華樓와 樂善齋의 부속건물들 緝敬堂 등은 도서관의 기능에서 더 나아가 전문적인 서화수장처로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要語 : 宮中 書畫收藏, 宮中 書畫收藏處, 眞殿, 尊閣, 承華樓, 緝敬堂

* 본 원고는 2005년 10월 서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학중앙연구원 미술사학 전공 박사과정 수료·강원대 강사 (hjungyon@hanmail.net)
접수일: 2005년 11월 30일 최초심사일: 2005년 11월 30일 심사완료일: 2005년 12월 17일

<ABSTRACT>

This paper aims at the further understanding of the collecting of paintings and calligraphy in the Joseon palace by investigating the building royal repositories to preserve them. In the early period, the thought of collecting paintings and calligraphy in palace was not much expanded, however, during the reign of King Sukjong(1674 ~1720), the rules for preservation of paintings and calligraphy were more elaborated and its collection also came to be enlarged. In the 19th century, the huge amount of art works such as royal portraits, calligraphy, and masterpieces by famous artists were kept in several palaces. The *Seunghwaru* Pavilion and the *Jipgyeongdang* Hall had functioned as the important places to preserve many art works at the end of Joseon.

Key words : Joseon palaces, art collection, royal repositories for the paintings and calligraphy

K C I

1. 서론

문치주의를 표방한 조선왕실에서는 治道에 도움이 되는 각종 서책 뿐 아니라 그 내용을 시각화했거나 예술적으로 표현한 서화에 대한 수집이 정책적으로 꾸준히 실행되었다. 따라서 조선전기부터 서책과 서화가 산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관 장소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전각별로 세분화된 기능을 갖추기까지 역사적인 변천을 거듭하였다.

조선 궁중에 수장되었던 서화작품의 범주에는 先王·先후의 초상인 御眞, 그들의 글씨와 그림인 御筆·御書, 그리고 국내외 역대 서화가들의 작품과 金石拓本 등이 포함되었는데, 이들 작품들은 궁중의 여러 수장처에 분산되어 관리·보존되었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다. 書畫收藏處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전각의 설립경위는 조선시대 宮中 書畫收藏의 흐름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더 나아가 조선왕실 문화정책의 一端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¹⁾ 조선왕실에서는 어필·어화를 포함한 서화류는 크게 典籍(藏書)의 범주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서화의 보관은 곧 典籍의 관리정책과 긴밀한 연관이 있으므로 서화수장처를 파악하는 일을 궁중 藏書處의 존재를 구명하는 것과 직결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궁중 서화수장처에 대한 미술사학계의 연구는 아직 저조하다고 할 수 있으며, 최근 서화수장사 관련 논고에서 일부 다루었을 뿐이다.²⁾ 서지학 분야에서는 기록물의 보존과 관리라는 차원에서 궁중에 존재했던 藏書處에 대한 연구가 실행되었으나,³⁾ 서화수장처 건립에 대한 단독적인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은

- 1) 조선시대 궁중에 서화를 보관했던 전각은 수장품의 성격에 따라 대략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先王·先후의 肖像을 보관한 眞殿이고 둘째는 선왕·선후의 글과 墨蹟을 보관한 장소인 尊閣, 마지막으로 역대 서화가들의 작품을 보관한 전각이다. 본 고에서 말하는 “서화수장처”는 이 세 종류의 전각을 총칭한 것이다. 또한 서책을 주로 보관했던 書庫였을 지라도 서화가 함께 보관된 곳이었으면 서화수장처라는 개념 하에서 함께 논의하였다.
- 2) 황정연, “19세기 宮中 書畫收藏의 형성과 전개,” 『美術資料』 70·71 호(국립중앙박물관 2004), 131-145; 同著, “朝鮮後期 宮中 御筆 收藏과 印刊—1725년 『乙巳列聖御筆刊進及景宗大王御筆屏風謄錄』의 분석,” 『藏書閣』 제12집(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215-264.
- 3) 白麟, 『韓國圖書館史研究』(韓國圖書館協會, 1969); 南權熙, “文獻閣 과 文獻閣書目의 分析—肅宗朝의 文化的 背景을 통한 韓國本 書庫의 研究,” 『圖書館學』 제1집 한국도서관

상태이다. 이 글에서는 관련 연구성과를 토대로 조선시대 궁중 장서처의 건립 속에서 서화를 전문적으로 보관한 수장처가 등장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먼저 살펴보고자 하겠다. 또한 전각 안에 보관된 서화작품의 종류, 서화수장품의 관리와 활용이라는 측면을 고찰함으로써 조선시대 宮中 書畫收藏史 연구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조선시대 궁중 서화수장처의 건립

조선시대 궁중 서화수장처 건립은 고려시대의 궁중 도서관 운영체제에 기원을 두고 발전한 것이다. 고려왕실에서는 이미 숙종년간(1095~1105)에 궁궐 내 秘閣을 설치하고 典籍을 수장하였으며, 收藏印을 찍는 제도가 등장하였다.⁴⁾ 숙종의 뒤를 이은睿宗(재위 1105~1122)은 ‘三閣으로 불린 淸讌閣·寶文閣·天章閣을 세워 중국 황제의 御筆·御書를 수장한 尊閣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11세기부터는 왕의 초상인 御眞을 보관하기위한 影堂인 景靈殿·靈通寺·明仁殿·仁熙殿 등을 세워 장서처나 존각과 구분되는 眞殿을 건립하기에 이르렀다.⁵⁾

고려시대 전각의 설치는 조선시대 궁중 서화수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학회, 1984), 147-183; 김상호, “朝鮮時代 公文書管理,” 『書誌學研究』 제1집(1986), 157-175; 배현숙, 『朝鮮王朝實錄研究序說』(서울: 태일사, 2002) 등 다수. 그 외 궁중 도서관이나 書目 관련 논문은 이후 각주에서 밝히도록 하겠다.

4) 이러한 사실은 조선전기 梁誠之가 1463년 世祖에게 올린 상소를 통해 알 수 있다. 고려 궁중에 內藏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전적은 국내에 남아 있는 예가 별로 없고 그 일부가 일본에 남아 있는데, 여기에 「高麗國十四葉辛巳歲御藏書大宋建中靖國元年大遼乾統元年」, 「高麗御珍藏印」(墨印), 「經筵」 등의藏書印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白麟(1969), 32-33; 박철상, “고려 숙종의 장서인,” 『문헌과 해석』 통권 15호(2001), 32-38 참조. 한편 중국에서 황실 수장품에 수장인을 찍은 풍조는 南朝 宋武帝(재위 420~422)의 御府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감정가가 작품이 황실의 秘藏品이자 鑑定을 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署押을 표시하였다. 劉濤, “東晉南北朝法書名迹의收藏與整理,” 『故宮博物院院刊』 4期(2002), 14-15 참조.

5) 고려시대 眞殿에 대해서는 고유섭, “高麗의 畫跡에 대하여,” 『韓國美術及文化論叢』(서울: 동문관, 1993), 269-292 참조.

지닌다. 그 이유는 조선전기에 들어와 고려의 前例를 따라 왕실자료를 보관하려는 전각을 세우고자한 움직임에 영향을 주었고, 더 나아가 조선시대를 걸쳐 궁중 소장품의 체계적인 정리가 각 전각별로 이루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⁶⁾

이 장에서는 조선시대 궁중 서화수장처 건립에 관한 역사적 추이를 다음 두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시기는 조선 초 문적보관의 중요성이 대두된 이후 서책과 더불어 서화를 보관하기 시작한 15~16세기이고, 두 번째 시기는 병자호란 후 숙종에 의해 宮室殿閣의 再建이 실시된 17세기부터 전문적인 궁중 서화수장처가 등장하기 시작한 19세기까지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시기 구분을 토대로 조선왕실의 장서처와 서화수장처의 설립경위에 대한 역사적인 흐름에 초점을 맞춰 논지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2.1 15세기~16세기

고려시대를 통해 형성되었던 眞殿의 설치와 왕실서책과 서화수장의 전통은 조선 건국 후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1438년(世宗 20)에 欽敬閣을 짓고 좌우에 <飭風圖>를 벌려 놓았다고 한 기록이나,⁷⁾ 1457년(世祖 3) 예조의 건의로 顯德王后 權氏의 誥銘과 冊寶, 장신구를 해당 관사로 하여금 수장하게 했다는 실록기사를 통해 15세기 이전부터 內府에 자체적으로 물품을 보관했던 장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건물명과 기능에 대해서는 상세하지 못하다.⁸⁾

6) 고려시대 문적의 보관과 장서처에 관한 개관은 南權熙,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청주: 고인쇄박물관, 2002) 참조.

7) 「世宗實錄」卷80 20年 1月 壬辰(條).

8) 「世祖實錄」卷6 3年 9月 戊辰(條). 조선시대 궁궐에 대해 종합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로는 <東闕圖>(1826~1827년 전후), 「漢京地略」(1830년), 「宮闕志」(奎950, 憲宗年間), 「東輿備考」(1857~1865년), 「增補文獻備考」(1903년), 「宮闕志」(高宗年間), <北闕圖形>(奎 11521, 1908년 경), <北闕後苑圖形>(奎 9979, 1908년 경), <東闕圖形>(奎 9980, 1908년 경)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憲宗대에 편찬된 「宮闕志」로, 여기에는 숙종 이후 궁궐의 모습, 御製詩文, 上樑文, 記文 등 典據자료가 폭넓게 수렴되었다. 이상은 홍순민, 「宮闕志」해제(「국역 궁궐지(1)」), 서울: 서울학 연구소,

그러나 「經國大典」에 의하면 인쇄된 서적을 따로 隆文樓와 隆武樓에 간직한다고 명시되어 건국 초부터 전문적인 藏書處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⁹⁾ 15세기 당시 이 두 장서처 안에는 중국에서 유입된 상당량의 서적이 보관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金宗直(1431~1492)은 隆文·隆武樓의 서적을 보고 “고대 三皇과 五帝의 서적들을 모두 모아 그 안에 가득 채웠으니, 기이한 광채가 奎壁에 전해져, 밤마다 어둑지 아니하구나”하며 당시 풍부했던 왕실의 장서규모를 예찬하였다.¹⁰⁾ 이러한 조선전기 왕실의 서적수장의 분위기를 통해 당시 궁중 안에 보관된 서화작품의 수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전기에 전적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계기는 世祖·成宗年間에 관직을 지낸 梁誠之(1415~1482)에 의해서였다.¹¹⁾ 梁誠之는 조선지도, 어제시문을 편찬하였고 조선전기 왕실 전적의 收藏과 관리를 진작시키는데 큰 공헌을 한 인물이다. 그는 당시 문란했던 文籍 관리를 타파하고 실록을 포함한 왕실 서책과 지도를 弘文館·春秋館·史庫에 세부씩 나누어 보관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당시에는 실현되지 못하였다.

궁중의 체계적인 전적 관리를 위한 梁誠之의 건의는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다음의 상소를 통해 전각의 설치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신이 그옥이 보건대, 임금의 御筆은 雲漢과 더불어 그 밝게 빛남이 같으며, 奎壁과 더불어 그 찬란함이 같으니, 萬世의 臣子들이 마땅히 尊閣을 세워 보배롭게 수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宋朝 聖製의 예로는 모두 집을 세워 간직하였으니, 官을

1994), 5-8 참조. 따라서 본 논문에서 인용한 「宮闕志」의 내용 역시 현종대 편찬한 본임을 밝혀둔다.

9) 「經國大典」, 「禮典」藏文書.

10) 金宗直, 「佔畢齋集」卷6 「詩集」文武樓觀書籍(「韓國文集叢刊」12, 民族文化推進會, 1988, 256).

“…三皇五帝書, 戢戢滿其內, 奇光屬奎壁, 夜夜不可晦…” 김종직의附記에 의하면 동쪽의 것을 隆文, 서쪽의 것을 隆武라고 하였으며 鄭道傳이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세종 때부터 御府의 서적을 수장하여 典校署로 하여금 出納을 맡게 하였다고 한다.

11) 世祖·成宗年間 서적 관리 대한 梁誠之의 공헌에 대해서는 鄭亨愚, 「朝鮮時代書誌史研究」(서울: 한국연구원, 1983); 李鍾默, “梁誠之의 서적 정책과 納齋集”의 간행경위, 「韓國文學論叢」 26집(2000), 1-25 참조.

설치하여 이를 관장하게 하였습니다. 太宗은 龍圖閣이라 하고, 眞宗은 天章閣이라 하고, 仁宗은 寶文閣이라 하고, 神宗은 顯謨閣이라 하고, 哲宗은 徽猷閣이라 하고, 高宗은 煥章閣이라 하고, 孝宗은 華文閣이라 하여 모두 學士, 待制, 直閣 등의 관직을 두었습니다. 바라건대, 이제 臣 등이 어제시문을 마감하여 올립니다. 麟趾堂의 동쪽 別堂에 이를 奉安하고 奎章閣이라 이름하소서. 또 여러 책을 소장하고 있는 內閣을 秘書閣이라 이름하여, 모두 大提學, 提學, 直閣, 應教 등의 관직을 두소서. 堂上은 다른 관직을 兼帶하게 하고, 郎廳은 藝文祿官을 兼差하여 出納을 관장하게 하소서.¹²⁾

위 글은 중국에서 어필을 보관한 실례를 교훈 삼아 조선 역대 임금들의 글씨를 보관할 尊閣을 따로 건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중한 임금의 필적을 보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궁궐 내 尊閣을 설치해야 하는 목적을 피력하였으며 이면에는 敬慕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謨訓資料를 보관하기 위한 전각이 설치된 경로에 비취보았을 때 이러한 敬慕와 尊崇의 정신은 비단 양성지 뿐 아니라 조선시대 전체를 아우른 가장 근본적인 의도였다. 아울러 양성지는 일정한 관직을 두어 전적을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그가 제시한 관직명이 고려의 淸謙閣에 배치되었던 職制와 상당히 유사해서 혹 고려의 관제를 염두해 두고 건의한 것이 아닌가 한다.

15세기에는 列聖의 어필을 따로 보관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으나, 尊閣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었으며, 成宗 6년인 1465년 成均館 안에 尊經閣을 건립하고 수단권의 藏書를 구비하였다는 기록은 궁중 내 전적 수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¹³⁾ 아마도 이러한 장서처에 어필이 함께 수장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전기에는 서책과 서화를 보관할 장소 마련이 미진한 상황이었지만 先王과 先后의 畫像을 봉안하고 관리하기 위한 眞殿의 설치는 일찍부터 이루어졌다. 太祖~太宗年間(1391~1450)에는 황제의 초상을 보관한 宋의 景靈宮과 功臣들

12) 『世祖實錄』卷30 9年 9月 戊午(條).

13) 『宮闕志』, 『昌慶宮志』 尊經閣. 尊經閣은 명륜당 북쪽에 있던 건물로 1475년에 건립되었으며, 1510년(中宗 5) 徐居正이 『尊經閣記』를 지어 바쳤다. 존경각은 1514년 화재로 燒失되었으며 당시 보관되었던 많은 典籍도 상당수 망실되었다.

의 초상을 보관한 唐의 凌煙閣 제도를 상고하여 濬源殿·長生殿(思勳閣으로 개칭)·廣延樓·文昭殿, 함경도의 威興本宮 등지에 태조의 影幀과 功臣像을 봉안하였다. 처음에는 여러 곳에 어진과 공신상을 두었지만 이후 景福宮 文昭殿 동북쪽에 위치한 濬源殿이 점차 대표적인 眞殿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¹⁴⁾ 선원전에는 1469년(睿宗 元年) 桓祖이하의 影幀 33함을 봉안하였으며, 1471년(成宗 2)에는 화공 崔涇과 安貴生에게 명하여 昭憲王后 를 摸寫하게 하였고, 세조와 예종의 어진을 봉안하였다.¹⁵⁾ 또 1539년(中宗 34)에는 恭靖大王과 定安王后의 영정을 이곳에 봉안하였으며, 이러한 관례는 조선후기까지 이어졌다. 이밖에 太宗年間(1400~1418)에 건립된 穆淸殿, 1469년에 건립된 崇恩殿 奉先殿으로 개칭), 진주의 慶基殿, 고려의 長樂宮터에 세운 永崇殿, 경주의 集慶殿 등지에 太祖의 御眞을 봉안한 것으로 보아 이미 조선전기부터 여러 곳에 어진을 分藏한 전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⁶⁾ 그러나 이 시기에 융성했던 진진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상당수가 불타버렸으며 수장되었던 어진 역시 燒失되었다.

이렇듯 어진을 여러 전각에 나누어 봉안한 반면 임금의 어필, 일반 서화는 圖書署나 校書館 또는 왕실의 財貨를 관리하였던 內帑庫에 둔 것으로 확인된다. 궁중의 繪事를 관장했던 도화서에는 고려왕실에서 전래된 그림과 화원들이 참고할 다양한 畫本을 수장하였고, 교서관에서는 王羲之나 趙孟頫 등 중국 역대 서예가의 작품을 보관하고 摹刊하게 하였다.

내탕고는 국왕의 衣襟와 內府의 財貨·金寶 등의 관리를 담당한 衙門인 尙衣院을 가리키는 말이며 御庫라고도 불렀다.¹⁷⁾ 내탕고에 축적한 물품은 先王의

14) 濬源殿 설립은 宋나라에서 皇屬籍을 편찬하고 宗正寺에 詔書를 내려 屬籍樓를 세우고 그것을 엄하게 받들게 한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선원전의 위치에 대해서 「增補文獻備考」 38 「輿地考」 26 朝鮮朝宮室 條에서는 仁政殿의 서쪽에 위치했다고 되어있으며, 「宮闕志」, 「景福宮志」에는 文昭殿의 동북쪽에 위치했다고 하였다. 後者는 선원전을 원래 있던 자리에서 1438년(世宗 30) 문소전 동북쪽으로 옮긴 것을 말한다. 濬源殿을 포함한 조선시대 眞殿의 발달에 대해서는 趙善美, “朝鮮王朝時代에 있어서의 眞殿의 發達—文獻上에 나타난 記錄을 중심으로,” 「考古美術」 145(1980), 10-23; 김지영, “肅宗·英祖代 御眞圖寫와 奉安處所 확대에 대한 고찰,” 「陞章閣」 27(2004), 55-76.

15) 「成宗實錄」 卷18 3年 5月 辛丑(條).

16) 각 殿閣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宮闕志」의 각 항목 참조.

金寶를 비롯하여 冊寶·寶印과 왕실이 수장한 서화류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문종대에 辛碩祖가 世宗이 그린 <蘭竹八幅屏風>을 진상하자, 文宗이 內帑에 두라고 명령했다든지,¹⁸⁾ 중종대에는 원나라 趙孟頫의 작품과 조선의 安平大君·崔興孝·朴耕의 필적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점은 이곳이 고유의 용도 외에 서화수장처로서도 並用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¹⁹⁾ 이는 내탕고가 왕실의 사사로운 용도를 비롯하여 임금의 체통을 유지하는 財源의 역할을 하였으므로 어필·어화 및 기타 귀중한 서화를 보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국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554년 화재로 인해 당시까지 내탕고에 보관되었던 물품들은 모두 불타버렸다.²⁰⁾

조선전기 왕실에서 서화를 내탕고에 보관한 것은 17세기 이후 尊閣을 설치해 어필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기 시작하기 이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서화작품을 특정한 전각에 수장한 풍토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며 내부 수장품의 증가에 따른 전각의 설치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시대적 상황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이상으로 살펴 본 바와 같이 조선전기의 왕실에서는 고려의 藏書制度를 계승하여 조선전기부터 御藏 收藏印을 찍었거나 어진을 여러 곳에 分藏한 전통이 일찍부터 존재하였다. 반면 서화 및 서책을 따로 보관하기 위한 전각의 설치와 관리는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梁誠之가 春秋館, 史庫, 典校署, 文武樓, 藝文館 등지에 서적을 分藏 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실행되지 못하였고, 서화 역시 여러 곳에 소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주로 內帑庫나 校書館에서 出納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추정된다. 조선전기에는 전반적으로 서화의 보관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成宗대에 이르러 서적을 分藏한 제도는 어느 정도 기강이 확립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²¹⁾

17) 내탕고에 대해서는 宋洙煥, 『朝鮮前期 王室財政 研究』(서울: 집문당, 2002) 참조.

18) 『文宗實錄』卷6 元年 6月 戊辰(條).

19) 『中宗實錄』卷83 31年 12月 乙巳(條).

20) 『明宗實錄』卷16 9年 2月 庚子(條).

21) 春秋館·承文院·弘文館·隆文樓·文武樓 등에 서적을 分藏 할 것은 『經國大典』體典」

기록을 통해 보면 왕실에서는 그림보다 글씨를 더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으며, 이는 善本을 골라 바로 印刊하여 왕실에서 쓰는 활자의 範本으로 삼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王羲之·趙孟頫 등 중국 名書家의 필적을 널리 구하여 摹寫하게 했다든지 성균관 儒生 들로 하여금 모범으로 삼게 하였다는 기록이 이를 증명해 준다.²²⁾ 어필·어화의 경우 下賜를 통해 私家로 유출된 작품을 적극적으로 구하려한 분위기는 아직 조성되지 않았고 오히려 私家에서 자발적으로 진상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점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어필이 다수 소실된 16세기 이후 왕실이 주도적으로 어필을 수집한 것과 시대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이렇듯 초기에는 왕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림을 보관했거나 중국 명서가의 필적을 적극 수집한 흔적이 있으나, 그 규모와 체제에 있어서는 아직 미약한 단계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왕실문화의 再建 분위기와 함께 궁중 수장 역시 활발해지면서 서화수장치의 건립도 점차 확대되었다.

2.2 17~19세기

조선전기에는 주로 어진을 봉안할 목적으로 서화수장치의 건립이 이루어졌던 것에 반해 기타 典籍과 서화를 위한 전각의 설립은 17세기 肅宗年間(1674~1720)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하였다. 숙종은 병자호란과 인조반정(1623)으로 인해 타격을 받은 궁궐을 재건하고 왕실문화를 부흥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군주였다. 어필·어화를 전문적으로 보관한 天翰閣과 御製閣, 宣祖의 글씨를 모아둔 爲善堂, 왕실의 서책을 보관한 文獻閣과 養心閣, 어진을 봉안한 南別殿·萬寧殿 등이 이 시기에 건립된 전각이다.

숙종대에 건립된 건물 중 창덕궁의 淸防閣은 17세기 후반 서화만 전문적으로

藏文書條에 명시되어 있다. 조선 전기에 왕실 문서와 장서를 보관한 書庫였던 文武樓는 16세기에도 동일한 용도로 이용되었다. 다음 실록기사 참조. “校書館啓曰 正郎朴詠所書三十三體篆字中庸 已命藏于文武樓矣, 只藏文武樓, 而無進上之件, 請進上五件印出何如, 傳曰可.” 『明宗實錄』卷6 2年 7月 戊辰(條).

22) 『世祖實錄』卷2 卽位年 10月 癸亥(條).

수장한 전각이 등장한 사실과 관련하여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청방각은 珍藏閣과 더불어 昌德宮의 魚水堂 북쪽에 있던 전각으로, 그림병풍과 障子를 전문적으로 보관한 장소였다. 숙종의 어제에 의하면 이곳은 서화병풍을 다량 소장했던 곳이자 그가 총애한 화가인 李明郁(17세기)의 그림병풍 數幅을 이곳에 갈무리하였다고 한다.²³⁾ 숙종이 이명옥의 그림이 청방각에 있었다고 한 것을 보면, 아마도 죽자나 병풍으로 粧縵된 그림이었을 것이며, 그가 題跋을 남긴 <孝廟御筆屏風>, <宣廟御筆屏障>, <唐女回姐畫簇>, <花善君水墨翎毛障子>처럼 죽자나 병풍, 障子로 粧縵된 작품들도 진장각 또는 청방각에 보관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청방각은 17세기 후반 서책과 별도로 서화만 보관한 수장처가 설립되었고 조선후기 서화수장처가 본격적으로 발달하기에 앞서 세워진 전각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서화에도 남다른 취미가 있었던 숙종은 왕실의 문예부흥에 一助하였으며, 그의 서화에 대한 관심과 존숭의식은 왕실 내 열성의 어필을 체계적으로 보관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아래 숙종이 1694년에 쓴 「天翰閣記」를 통해 이러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우리 文宗大王·成宗大王·宣祖大王·元宗大王·仁祖大王·孝宗大王·顯宗大王 일곱 임금의 御筆 鏡板이 大內에 있으나, 뒤섞이고 흩어져 있어 매우 敬謹이 결여되었으므로 나는 이를 걱정하였다. 특별히 大造殿의 西翼室을 택하여 옛것을 그대로 수리하고 각판 중에서도 손상된 것을 내와 宗臣에게 주어 열벌을 손질하게 하였다. 소중히 보관하여 永世토록 전하게 하고자 새로 天翰閣 이라 이름 하였으니 古制를 모방하여 欽慕 하고자 하는 뜻이다.²⁴⁾

23) 「列聖御製」 제11책 「聞李明郁死 惜其畫才精妙」(서울대 규장각 영인본, 2002), 256.

“海東諸畫更無當，獨可堪倫孟永光，才妙丹青何不盡，只留數幅在清防.”

24) 「宮闕志」 「昌德宮志」 天翰閣.

“惟我文宗大王·成宗大王·宣祖大王·元宗大王·仁祖大王·孝宗大王·顯宗大王，凡七廟御筆鏡板藏于大內，而雖然，散置太欠敬謹，予爲之懼，乃別擇大造殿之西翼室，仍舊葺理，又就鏡板中傷缺者出，付宗臣重補訖十襲，珍藏以傳永永，遂新揭華名曰天翰閣，皆倣古制，而寓欽慕” 이 글에서 말하는 “大內”은 왕실 내의 처소를 일컫는 듯하나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는지 확실하지 않다. 홍순민에 의하면 實錄에는 大內라고 호칭한 예가 많은데 이는 外殿과 內殿을 구분한 개념에서 나온 말로, 일반적으로 燕寢을 포함한 왕의

위 글은 어필 보존을 위해 尊閣을 설치한 의도가 列聖들에 대한 崇慕精神의 표방에 있었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준다. 天翰閣은 창덕궁 영취당 동쪽에 있던 전각으로 대개 열성어필의 간관을 간수하던 곳이다. 이후 大造殿의 西翼室로 불린 天翰閣에 보관되던 어필은 純祖年間(1800~1834)에 東翼室로 移奉되었다.²⁵⁾

숙종은 어필을 봉안할 목적으로 天翰閣을 세운 반면, 養心閣, 欽文閣과 더불어 당시 궁궐의 장서처 중 하나였던 廂庫의 장서관리가 허술하자 養心閣 남쪽에 文獻閣을 따로 설치하여 廂庫의 장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²⁶⁾ 또한 1692년(肅宗 18)에는 열성의 어필이 걸려있는 暎花堂이 오래되어 기울자 보수하도록 命하였으며, 1700년(肅宗 26)에는 宣祖의 어필을 모아 模刻한 후 爲善堂에 보관하게 하였다.²⁷⁾

숙종년간에는 어필을 해당 전각에 봉안한 것과 더불어 선원전과 資政殿에 太祖의 어진을 봉안한 것을 비롯하여 璿源閣, 永禧殿에도 영정을 봉안하였다. 숙종의 어진을 봉안하기 위해 진전으로 이용된 곳으로는 永輝堂·長寧殿·長寧舊殿 등이 있다.²⁸⁾ 『正祖實錄』에는 長寧殿에 영조의 御眞을 함께 봉안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 곳은 조선후기에도 진전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⁹⁾

이처럼 왕실의 다양한 전적을 정리하고 보관하고자 노력한 숙종이었지만 당시에는 어필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職制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러한 미비점은 18세기 英·正祖年間에 걸쳐 상당히 보완되었으며 정조년간에 이르러

일상생활을 위한 전각을 지칭한 것이라고 한다. 洪順敏 “朝鮮王朝 宮闕 經營과 「兩厥體制」의 변천,”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5), 76-80.

25) 『宮闕志』 「昌德宮志」 天翰閣律賦 참조.

26) 『宮闕志』 「昌慶宮志」 文獻閣 文獻閣銘并小序. 文獻閣은 昌慶宮 景賢堂의 동쪽 행랑에 있었다. 1700년(肅宗 26)에 건립되었으며, 숙종의 序文에 “千萬卷秩于以藏之”라고 되어 있어 전한각에 상당히 많은 전적이 보관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7) 『宮闕志』 「昌德宮志」 暎花堂銘 또는 舊名靈慶模刻宣廟御筆改號曰爲善 참조.

28) 永輝閣은 경복궁 景薰閣의 서편에 있다. 長寧舊殿은 1695년(肅宗 21) 江華留守 金構가 건립하였고, 長寧殿은 1722년(景宗 2) 江華留守 洪啓迪이 세웠다. 장녕구전은 새로 지은 장녕전의 동쪽에 있었다고 한다. 이상은 李哲源, 『宮中史』(서울 동국문화사 1954)에서 발췌

29) 『正祖實錄』 卷1 卽位年 5月 辛未(條).

奎章閣 제도가 완비되면서 여러 전각의 통합운영체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숙종을 계승한 英祖(재위 1724~1776)는 왕세제 시절 日閑齋라는 서재를 짓고 여러 서화작품을 수장했는데, 이러한 취향은 보위에 오른 후 궁중 서화수장이 활성화되는데 일차적인 요인이 되었다.³⁰⁾ 일한재에는 숙종으로부터 전수받은 서화작품 일부와 영조가 모은 서책과 서화가 보관되어 있었다. 그 분포를 보면 어필은 숙종어필이 가장 많고 서화로는 安平大君·李壽長·李志定の 글씨, 尹斗緒·李明郁의 그림 등 17세기 이전 서화가의 작품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영조는 敬奉閣에 중국 皇帝의 御製·御筆·御書·誥命 및 「皇朝事蹟」을 보관하도록 하였고, 1756년 明의 황제가 내린 용무늬의 명청시대 관복인 蟒衣의 寶章에 친히 글을 짓고 궤에 넣어 선원전 동쪽에 있던 養志堂에 보관하였다.³¹⁾ 그는 특별히 열성의 어진을 봉안하는 일을 극진히 하여 璿源殿 이외에 泰寧殿의 藏譜閣·景賢堂·萬寧殿 등지에도 어진을 봉안하고 친히 현판을 쓰거나 시문을 짓기도 하였다. 아래에 인용한 것은 영조가 지은 「泰寧殿重修上樑文」(1733)으로, 御眞 奉安을 위해 전각을 세운 목적을 피력한 것이다.

생각건대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德教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先王의] 모습을 남기는 방법은 영정을 가장 먼저 그리는 것인데, 이미 모습을 그려 바르게 되었으면 온전하게 보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 殿을 重修하여 옛 이름 그대로 걸었다.³²⁾

즉 선왕의 영정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간수하는 일 또한 德教의 요체이므로 전각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조선의 列聖朝마다 어진을 봉안한 전각을 폐하고 새롭게 건립했다든지 기존의 전각을 重修하여 보수한 일이 빈번했던

30) 일한재는 영조가 등극하기 전에 머물렀던 潛邸로, 그는 노년에도 이곳을 종종 방문하였다. 동쪽으로는 경복궁이, 서쪽으로는 仁慶宮이 위치한 지점에 있었다. 이곳의 소장품은 「日閑齋所在冊置簿」(장서각 소장본, K2-4917)에 기록되었다.

31) 「宮闕志」 「昌德宮志」 養志堂과 敬奉閣(條)참조.

32) 「宮闕志」 「慶熙宮志」 泰寧殿.

“惟以御國之要，德教爲本，遺像之道，影子最先，伊旣奉擢之有正，其宜完固之傳，億是用重營斯殿，復揭前名”

이유는 선왕에 대한 숭모의식과 더불어 德治의 근본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조선왕조 동안 무수한 전각이 설립되었지만 정조의 奎章閣 설치의 宮中 書畫 收藏史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규장각은 기본적으로 중국 宋의 전각제도를 바탕으로 한 것이나, 조선전기에 실행되지 못했던 梁誠之의 상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숙종대의 열성어제, 어필을 봉안할 전각을 세우고자 한 의도를 계승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³³⁾

정조는 규장각을 설립하는데 있어 尊閣을 따로 세워 御製·御筆을 봉안한 宋代와 달리 한 곳에 모아둠으로써 비용과 번거로움을 없애는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규장각은 본래 英祖의 필적을 간직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으나,³⁴⁾ 그 주변에는 宙舍樓·奉謨堂·闕古觀·皆有窩 등 국내의 전적을 보관한 전각이 밀집되었을 뿐 아니라 宋 天章閣의 고사에 의거하여 御眞을 규장각에 奉審하는 節目까지 만들어져 규장각 설치를 계기로 궁중 서화수장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³⁵⁾ 따라서 현재까지 謨訓 자료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이전부터 엄숙한 절차에 의해 보관·관리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규장각 설치로 인해 18세기 이후 거의 모든 궁중 소장품의 보관은 주로 그 부속건물인 奉謨堂·闕古觀·皆有窩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현존하는 왕실 소장품 목록인 「奎章閣藏書目」, 「奉謨堂奉藏品目錄」, 「闕古觀書目」, 「皆有窩北坊書目」 등은 정조년간 이후에 작성된 것이며 주로 규장각 주변에 있던 소장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33) 正祖는 奎章閣 설치가 前朝의 뜻을 이은 큰 의의가 있음을 종종 피력하였다. 다음 「正祖實錄」 卷11 5年 2月 丙辰條 참조. “하교하기를, 內閣의 이름이 光廟 병자년에 처음 생겼다가 중도에 폐기되었다. 奎章閣이라는 호칭은 肅廟 갑술년에 시작되었는데 御書의 扁額이 지금까지 宗正寺에 있다. 나 소자가 嗣服한 뒤 그 뜻을 追述하여 규장각을 건립한 것은 참으로 우연한 일이 아니다.”

34) 정조대 奉謨堂에 봉안되었던 자료는 규장각 소장의 「奉謨堂奉安御書總目」에 의해 확인된다. 그 내용은 璿源譜略, 列聖誌狀, 寶鑑, 遺教, 大寶, 列聖御製와 주로 영조의 御製 印本과 필사본, 廣進帖, 御筆, 御畫, 御押 이다. 이렇듯 정조대의 봉안자료는 대부분이 영조의 御製·御筆類가 차지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35) 어진을 봉심하는 節目에 대해서는 「正祖實錄」 卷45 5年 9月 戊午(倅) 또는 「奎章閣志」 卷1 「奉安」 第7奉御眞 참조.

규장각의 부속 전각들 중 성격과 규모면에서 가장 방대하며 역대 御製·御筆·御書를 두루 보관한 곳은 奉謨堂이다. 봉모당은 闕武亭의 옛터에 건립된 전각으로, 謨訓을 받들어 존송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³⁶⁾ 조선후기에는 규장각 소속의 모훈자료의 珍藏處로, 조선말기에는 宗親府 소속의 尊閣으로 이용되었다.³⁷⁾ 18세기 이후 궁중 서화수장의 전개에 있어 어필의 관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도 봉모당 건립과 무관하지 않다.

현재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에는 「奉謨堂印」이라는 인장이 찍혀있는 전적이 상당수 보관되어 있는데, 이는 봉모당 장서가 지금의 규장각 藏書에 편입되지 않고 별도로 관리되다가 1969년 昌德宮 소재의 藏書閣으로 이전되어 이후 한국학중앙연구원 관할로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봉모당에 보관되었던 자료는 조선후기부터 일제시대에 이르기까지 격변의 시간 속에서 수집·봉안된 어필관계 자료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봉모당 외에 정조년간에 중요한 장서처로는 摛文院이 있었다. 이문원은 선원전 서쪽에 위치한 전각으로, 본래 御眞·御製·御筆·璿源譜牒·內藏書籍 등을 보관하던 곳이었으며 후에는 규장각까지 관장하였다. 摛文院은 원래 都摠府였으나 1781년(正祖 5)에 內閣(奎章閣)의 藏書가 이곳으로 이관되면서 다량의 어필이 보관되었고 정조가 친히 현판 글씨를 써서 揭示하도록 하였다.³⁸⁾ 이 곳에 소장되었던 전적의 내역은 장서각에 소장된 「摛文院書目」(K2-542)을 통해 확인되며 여기에 500여점 이상의 御筆이 포함되어 있어 원래 방대했던 규모를 추측할 수 있다.³⁹⁾ 같은 해인 1781년에는 孝宗代부터 강화부에서 보관해 오던 귀한 책들

36) 謨訓은 왕이 신하와 相論한 聖謨와 신하에게 내린 왕의 諭訓을 일컫는 말이나, 『奎章閣志』의 「奉謨訓」條에 의하면 列聖御製·御筆·御書·顧命·遺誥·密教·璿源世譜·寶章·印章·寶鑑·狀誌도 그 범주에 포함된다(『奎章閣志』卷1「奉安」第3 奉謨訓).

37) 奉謨堂의 역사와 소장품에 대해서는 千惠鳳, “奉謨堂考,” 『國會圖書館報』10권 제2호(1973), 5-21 참조. 조선말기부터 일제시대 奉謨堂 藏書의 이전과정에 대해서는 千惠鳳, 『藏書閣의 歷史』, 『藏書閣의 歷史와 資料의 特性』(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6), 3-104 참조.

38) 『宮闕志』, 『昌德宮志』, 摛文院.

“摛文院在璿源殿西, 卽奎章學士豹直之所, 本都摠府. 正宗五年辛丑, 移設內閣于此, 御書扁額 掌奉御眞·御製·御筆·璿源譜牒·內府書籍…” 이문원의 기능에 관해서는 玉泳最, “摛文院의 藏書와 書目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12집(1996), 353-377 참조.

을 옮겨와 따로 보관하기 위해 外奎章閣을 설립하기도 하였다.⁴⁰⁾ 그리고 4년 뒤인 1785년(正祖 9)에는 늘어나는 藏書를 보관할 장소를 택해 昌德宮 大西齋 동쪽에 東二樓를 짓고 많은 서적을 수장하였으며, 임금의 초상화를 그려 奎章閣 상층인 宙舍樓에 봉심하였다.⁴¹⁾

이렇게 정조년간에 장서처이자 서화수장처로 이용된 규장각 주변의 여러 전각은 純祖부터 純宗代(1907~1910)에 걸쳐 계속 그 수장품이 증가하자 보관 장소가 협소하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전각이 增設되거나 기타 장소로 대치되기도 하였다. 주된 진전이었던 선원전 역시 헌종대에 이르러 빈방이 없을 정도로 모두 차차 景慕宮의 望廟樓, 慶祐宮의 齋室에 봉안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다.⁴²⁾

봉모당 역시 어제어필이 오랫동안 계속 봉안됨에 따라 그 장소가 협소해지자 철종대에 이르러 移建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1857년 摛文院 大西齋에 따로 처소를 마련하였다.⁴³⁾ 1828년(純祖 28)에는 숙종대부터 열성어필의 鏤板을 간직해오던 珍藏閣 자리에 演慶堂을 건립하여 이후 많은 장서를 수장하였다.⁴⁴⁾ 高宗代(1863~1907)에는 전적 및 서화를 珍藏한 觀文閣과 欽文閣을 중건하였으며, 흠문각에는 高宗과 純宗의 어진을 봉안하여 후대에까지 전각의 증설과 자료의 이동이 계속 이루어졌다.⁴⁵⁾ 관문각과 흠문각에 소장되었던 자료는 화재로 인해 대부분 소실되어 구체적인 내역은 알 수 없으나 高宗의 御印을 모아둔 것으로 여겨지는 「德壽宮印存」에 「觀文閣書書記」, 「欽文閣書書記」 등의 印影이 포함

39) 현존하는 「摛文院書目」은 上·下 2冊으로, 조선말기에 다시 필사된 것이다. 이는 원래 목록에 작품이 추가되면 다시 傳寫한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목록에 高宗의 어필 다음에 “今上”이라고 쓰여진 것으로 보아 이 목록은 純宗年間(1907~1910)에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40) 외규장각의 역사와 소장 자료에 대해서는 이태진, 「왕조의 유산—외규장각 도서를 찾아서」(서울: 지식산업사, 1994)참조.

41) 「正祖實錄」卷49 「附錄」正祖大王行狀.

42) 「憲宗實錄」卷3 2年 11月 癸巳(條).

43) 「哲宗實錄」卷48 7年 12月 戊申(條); 同 卷48 8年 2月 庚寅(條).

44) 演慶堂에 보관되었던 御筆·睿筆의 내역은 「演慶堂漢文冊目錄」(1920년 필사, 장서각 소장본, K2-4968)을 통해 알 수 있다.

45) 「高宗實錄」卷25 25年 2月 乙未(條); 同 卷25 25年 4月 乙巳(條); 同 39年 6月 21日(양력)條; 同 卷41 41年(1904) 7月 2日(양력)條

되어 있어 이 두 전각은 서화수장처로도 이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⁴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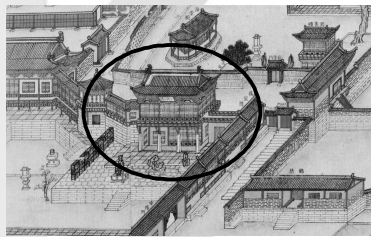
19세기 궁실전각 중 풍부한 서화자료를 수장했던 곳으로 昌德宮 樂善齋의 뒤편에 있는 承華樓와 景福宮의 上涼亭 앞에 위치한 緝敬堂을 꼽을 수 있다 <그림 1·2>. 승화루 일곽은 정조년간에 창건된 것으로 본래 東宮의 영역에 속했던 곳이다. 상층인 승화루와 하층인 儀宸閣으로 구성된 2층의 樓閣을 가리키며 현종년간에 개칭되기 전까지 小宙舍樓로 불렸다 <그림 3>. 현재 의신각은 철거된 상태이다. 이곳에는 많은 서책과 더불어 약 1,000점에 달하는 중국 및 우리나라 서화가 소장되어 있었으며 현종대부터 고종 초반기까지 자료의 出納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⁴⁷⁾



<그림 1> 창덕궁 承華樓의 현재모습



<그림 2> 경복궁 緝敬堂의 현재모습



<그림 3> <東闕圖>의 小宙舍樓(상층)와 儀宸閣(하층), 19세기, 273×36.5cm, 고려대박물관 소장

46) 관문각에 소장되었던 서화의 현존여부는 미상이지만 이곳에 보관되었던 서책 일부가 藏書閣에 소장되어 있는데, 대부분 諺文小說類이다

47) 승화루의 소장품을 기록한 『承華樓書目』에 의하면 서책 중 연대가 가장 늦은 것은 현종대에 편찬된 李尙迪(1804~1865)의 『恩誦堂集』이지만 그림은 고종대 궁중화원이었던 李漢喆(1812~1893)의 畫帖이다. 따라서 고종년간까지 자료가 계속 追輔되었을 확률이 크다고 본다

승화루 옆에 위치한 樂善齋(1847년 건립)는 현종이 평상시 거처했던 곳으로, 그 부속건물들인 古藻堂을 비롯하여 研經樓·留齋·自怡堂 등에도 많은 서화가 소장되어 현종이 대신들을 시켜 그곳에 소장된 畫匣을 꺼내와 완상하였다.⁴⁸⁾

緝敬堂은 承華樓보다 연대가 늦은 고종년간에 건립된 전각으로, 역시 역대 금석탁본 및 명·청대 서화자료가 많이 소장되었던 곳이다. 이곳은 고종의 寢殿이었던 興福殿에 예속된 건물이며 1868년 흥선대원군에 의해 경복궁 중건공사가 이루어진 후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⁹⁾ 고종은 왕실도서관이었던 集玉齋에 韓·中·日의 최신 文籍을 간직한 한편 집경당에는 서화를 집중적으로 보관하여 왕실의 문화부흥을 이루고자하였다. 집경당에 소장되었던 서화는 약 1,073점에 달하며 승화루 다음으로 이렇듯 많은 서화가 보관되었던 전각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19세기 末에는 세자의 교육을 담당했던 春坊에도 많은 서화가 보관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어필, 기타 그림과 글씨, 印譜類가 약 90여점 이상 소장되어 있었고, 일제강점기 동안 일부 자료들이 유출되어 현재 박물관이나 공공기관에 소장되어 있다.⁵⁰⁾

이상으로 언급한 조선시대 궁중에 서화를 보관했던 전각 외에 더 많은 장소가 존재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상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48) 이러한 사실은 현종이 후원한 화가인 許鍊(1809~1892)의 『小癡實錄』(瑞文堂 영인본, 1992)을 통해 알 수 있다.

49) 홍대영 편, 『한국의 건축문화재(서울편)』(서울: 기문당, 2001), 88-89.

50) 『春坊藏書總目』(1905년 필사, 장서각 소장본, K2-6969 ~70).

<표> 朝鮮時代 宮中 書畫收藏 관련 殿閣

所屬宮	殿閣名	建立時期	위 치	기 능	典據 및 기타
一. 景福宮	璿源殿	1469 (睿宗元年)	仁政殿 서쪽	列聖祖 御眞 봉안	• 1469년 影幀 33환을 보관 • 1471년 世祖와 睿宗御眞봉안 • 1539년 定安王后 영정 봉안 등 多數 기록이 있음.
	隆文樓	1395 (太祖 4)	大造殿 東行閣 內	왕실간행 서책	太祖年間에 隆武樓와 함께 설립되었으나 燒失 후 1868년 景福宮 重建時에 再建됨.
	隆武樓	1395 (太祖 4)	大造殿 西行閣 內	同上	同上
	內帑庫	朝鮮前期	思政殿 앞	왕의 衣櫥, 財貨, 御製 御筆, 기타 書畫	尙衣院. 1554년 火災 후 중건.
	集玉齋	1873 (高宗 10)	八隅亭 서쪽	列聖御眞 · 御筆 · 印譜類	고종대 宮中 圖書館
	緝敬堂	高宗年間	交泰殿 뒤쪽	中國圖書 · 書譜 · 朝鮮 書畫類	후에 외국사신 접대 장소로 쓰였음.
	坤寧閣	高宗年間	乾清宮 서쪽	中國圖書 · 朝鮮書畫	건청궁의 부속건물
	長安堂	同上	곤령합의 서쪽	왕실서책, 어필	同上
二. 昌德宮	春安堂	同上	건청궁의 隆文堂 서쪽	어필, 각종 서책	건청궁 뒤에 있던 용문당의 부속건자, 「內閣藏書彙編」所收.
	景薰閣	肅宗年間	澄光樓의 아래층	중국황제 어필, 중국 그림 보관	肅宗의 <詠景薰閣詩>경훈각만 현존
	永輝堂	肅宗年間	景薰閣 서쪽	肅宗의 御眞봉안	이후 선원전으로 御眞移奉.
	欽文閣	高宗年間	溟政堂의 남쪽	書籍 收藏	현재는 없음.
	天翰閣	1694 (肅宗 20)	永輝堂 동쪽	列聖御筆과 刊板	西翼閣에 보관하였으나 純祖年間에 東翼室로 옮김.
養志堂	孝宗年間以前	璿源殿 동쪽	御眞, 明 寶藏品, 御	舊名은 孫志堂이나	

51) 이 표는 「宮闕志」·實錄·王室 書目·印譜 등을 참조해서 작성한 것이다. 엄격히 말해 궁중 서화수장처는 궁중 안에 설치된 전각만을 일컫는 것이겠으나, 왕실에 의해 설립되고 관리된 수장처를 일컫하고자 본 표에서는 都城 안·밖에 건립된 전각도 포함시켰다. 眞殿은 「宮闕志」 「都城志」에 기록된 전각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며, 표 중 '기타'는 소속궁과 위치가 불명확한 전각을 별도로 표기한 것이다.

二. 昌德宮				筆·御書 보관	孝宗 때 改稱.
	奎章閣	1776 (正祖元年)	大造殿 북쪽	藏書·御製御筆·御眞·榻本	
	宙舍樓	1776 (正祖元年)	규장각 상층	同上	규장각에 보관된 전적을 열람하던 곳.
	書香閣	1776 (正祖元年)	宙舍樓 서쪽	御眞 봉안	원래 眞殿. 1777년부터 王妃가 누에를 친 蠶邸로 쓰임.
	闕古觀	1776 (正祖元年)	瑞恩臺 옛터	藏書·御製·御筆·中國書畫	乾隆皇室의 內賜本多數
	皆有窩	1776 (正祖元年)	芙蓉亭 남쪽	中國書籍, 御筆 보관	
	大畜觀	英祖年間	重熙堂 남쪽	中國 및 朝鮮書籍 御筆 보관	奎章閣 소장 「大畜觀書目」(英祖末 ~ 正祖初 編)
	奉諫堂	1776 (正祖元年)	闕古觀 西南	御製·御筆·御書·誥命·遺詔·寶冊·印章·榻本 등 보관	본래 闕武亭터였음.
	映花堂	1692(肅宗18) 重建	述盛閣 동쪽	御筆 보관	王族들의 逍遙소.
	倚斗閣	1827(純祖27)	映花堂 북쪽	中國 및 朝鮮書籍	翼宗이 春宮時 건립.
	珍藏閣	肅宗年間	魚水堂 북쪽	列聖御筆 鏤板	肅宗의 <珍藏閣銘>, 今無.
	清防閣	肅宗年間	魚水堂 북쪽	書畫屏風과 障子	숙종이 李明郁의 그림을 수장. 今無.
	演慶堂	1828(純祖28)	開錦齋 남쪽	藏書, 翼宗의 御眞	翼宗이 春邸에 있을 때 건립. 옛 珍藏閣터
	摛文院	1781(正祖5)	璿源殿 서쪽	御眞·御製·御筆, 璿源譜牒, 書籍	자비대령화원 녹취제 시험에 출제되었음.
	東二樓	1785(正祖9)	大酉齋 동쪽	藏書·御筆·御書	
	欽奉閣	1769 (英祖 45)	大報壇 서쪽, 承文院 근처	명나라 황제의 御製·御筆, 「皇朝事蹟」 봉안	1769년 敬奉閣을 欽奉閣이라고 개칭.
承華樓	正祖年間 建立 憲宗年間 改稱	樂善齋 북쪽	御筆·御書, 중국 및 조선의 書畫·筆帖 印譜 보관	• 개칭 전 小宙舍樓로 명명. •중국 및 조선 서화가들의 서화작품.	

朝鮮時代 宮中 書畫收藏處에 대한 연구

二. 昌德宮	樂善齋	1847 (憲宗 13)	내의원 동쪽	諺文小說類 · 書畫	憲宗이 애호하던 서화보관
	古藻堂	憲宗年間 (1847년 경)	樂善齋의 앞면 부속건물	중국 및 조선의 서화 작품 보관	憲宗이 玩賞하던 작품들을 보관하였음.
	寶蘇堂	憲宗年間 (1847년 경)	樂善齋 퇴칸	書畫 · 印譜	「寶蘇堂印存」이 현존함.
	譜閣	哲宗代 以後	未詳	王室族譜 · 八高祖圖 · 印譜 · 地圖 · 列聖御筆	
三. 慶熙宮	資政殿	肅宗代 以前	崇政殿 북쪽	太祖의 御眞 봉안	肅宗의 御製時 瞻拜資政殿太祖御容」
	泰寧殿	1733년 추정	資政殿 서쪽	御眞 봉안	英祖의 <重修上樑文>
	爲善堂	1700 (肅宗 26)	泰寧殿 서쪽	宣祖의 御筆 봉안	舊名은 靈慶堂이 있음.
	景賢堂	英祖代 以前	養德堂 남쪽	御眞圖高 장소 및奉安處	英祖의 「景賢堂起懷」
	文獻閣	1700 (肅宗 26)	景賢堂 동쪽	朝鮮의 書籍보관	• 廂庫의 서적을 옮긴 것. • 中國書 보관은 養心閣
	光明殿	英祖年間	隆武堂 북쪽	太祖 御眞 봉안	
	敬奉閣	1769 (英祖 45)	承文院 근처	중국 황제의 어필 · 어화	1774년 경봉각 곁에 奉安閣을 설치하고 明 勅書보관
四. 德壽宮	欽文閣	高宗年間	덕수궁 서쪽 漱玉軒 근처	왕실서책과 서화 · 御眞 草本, 高宗 純宗御眞 봉안	• 「德壽宮印存」에 수록된 「欽文閣書畫記」 印影 • 1904년 4월 14일 어진은 淸明殿으로 移奉 • 1904년 4월 15일 화재로 전각 손실
	觀文閣	1888 (高宗 25)	未詳	왕실서책과 서화	「德壽宮印存」에 수록된 「觀文閣書畫記」 印影. 이후 화재로 손실
	淸明殿	高宗年間	未詳	高宗 純宗御眞 봉안	외국빈객 접견실로 竝用
五. 都城	穆淸殿	太宗年間	개성 崇仁門	太祖의 御眞 봉안	임진왜란 때 燒失
	藏譜閣	英祖年間 추정	彰義宮 內	英祖의 御眞 봉안, 年譜의 판본	「英祖實錄」 卷 106

五. 都城	靈壽閣	1719 (肅宗 45)	耆老所 內	御製御筆 봉안	肅宗의 「靈壽閣上 標文」
	長寧舊殿	1695 (肅宗 21)	長寧殿 동쪽	肅宗의 御眞 봉안	江華留守 金構 가 건립
	長寧殿	1722(景宗 2)	江華行宮의 동쪽	英祖의 御眞 봉안	江華留守 洪啓迪 이 건립
	萬寧殿	1713 (肅宗 39)	長寧殿 동쪽	御眞 봉안	• 江華留守 趙泰老 가 건립 • “別殿이 라고도 불림 • 1776년(英福2) 長寧殿과 합쳐짐.
	外奎章閣	1781 (正祖 5)	江華行宮의 동쪽	內冊庫의 典籍 과 御 筆	江華留守 徐浩修 가 건립.
	奉先殿	1469 (睿宗元年)	경기도 揚州 주엽산의 奉 先寺 옆	世祖의 御眞봉안	임진왜란 때 소실
	華寧殿	1801(純祖元年)	華城行宮의 동쪽	世祖의 御眞 봉안	
	慶基殿	1410 (太宗 10)	全州의 城南 門	太祖의 御眞 봉안	임진왜란 때 묘향산 으로 御眞 移奉.
	全州行宮	憲宗代 以前	전주부의 동쪽 40리 威奉山	유사시 眞殿으로 이 용	
六. 其他	永禮殿	1601년 (光海 2)	한양 南部 薰 陶坊	太祖·世祖·元宗御 眞 봉안	• 최초로 奉慈殿으 로 명명 • 1622년 南 別殿으로 개칭 • 1677년 증축 • 1690년 永禮殿이 라 명명
	日閑齋	英祖年間	景福宮 과 仁 慶宮의 中間 지점	열성이필·중국 및 조선 서화가 작품	1725년 「日閑齋所 在置簿冊」
	彰義宮	未詳	경복궁 서쪽	孝宗御筆 봉안	효종·조의 潛邸
	寶文閣	일제시대	未詳	왕실서책·地圖·서 화첩	1925년 「寶文閣書 冊目錄」

위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 걸쳐 궁중 도서관이자 서화수장처로 竝用된 전각이 여러 곳에 존재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를 통해 조선궁궐 내 서책 및 서화를 보관하였던 전각의 施設 현황과 위치, 소장품의 성격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수치는 조선왕조가 서적 및 서화작품의 수집과 보관을 정책적으로 꾸준히 시행했음을 말해준다.

전반적으로 서화수장처가 주로 昌德宮에 밀집되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창덕궁이 원래 1404년(太宗 4) 正宮이 아닌 離宮의 성격으로 건립되었으나 광해군대 이후 경복궁보다 더 중요한 궁궐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 18·19세기 동안 서화가 다량으로 보관되었던 전각들의 위치가 일반적으로 사료에서 ‘大內’라고 지칭한 왕과 왕비의 사적인 생활공간인 燕寢[內朝·寢殿]과 가까운 곳 또는 그 영역에 속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장서처가 外朝와 內朝를 가리지 않고 고루 분포했던 것과는 구별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英祖의 潛邸였던 日閑齋를 비롯하여 憲宗이 항상 거처하였던 낙선재와 가까운 承華樓, 高宗의 寢殿과 가까웠던 集玉齋, 緝敬堂, 坤寧閣 등은 모두 연침의 영역에 속했다는 위치상의 공통점을 지닌 곳이다.⁵²⁾ 조선 후기 서화수장처가 대부분 침전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은 궁중 서화수장이 국가적인 성격을 띠고 이루어진 것이긴 하나 왕족들이 사적으로 향유한 서화애호취미로 인해 생활권과 밀접한 장소에 작품을 비치함으로써 열람의 편의를 도모한 결과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서화수장처에 작품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수장되었는지, 그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3. 조선시대 궁중의 서화수집과 관리

3.1 서화수집과 보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여러 곳에 궁중 서화수장처가 건립된 현상과 더불어 전각 안에 다양한 서화를 구비하고자 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궁중 서화수장은 전제왕권체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 작품 중에서도 왕의 풍모를 전해주는 초상, 글씨, 그림이 일차적인 수집 및 보관의 대상이 되었

52) 이러한 위치상의 특징은 중국 황실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예를들어 18세기 중국 황실의 서화수장처로 쓰인 紫禁城의 乾清宮과 養心殿, 御書房은 모두 內廷의 영역에 속했던 곳이다. 현재 舊 황실전각을 박물관으로 쓰고 있는 북경고궁박물관이 內廷의 영역에 자리하게 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다. 위에서 살펴 본 서화수장처 중 眞殿과 尊閣이 어느 전각보다도 중요시되어 증설된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어진이 조선 개국 초부터 각별한 보존의 대상이 되었던 반면 왕의 필적은 임진왜란을 겪은 후 본격적으로 수집되었다. 이는 임진왜란 동안 경복궁에 있는 대부분의 전각들이 전소되었으므로 기존에 궁중에 소장되었던 어필이 상당수 유실된 데에서 기인한 것이다. 16세기 이후 왕실에서는 민간에 남아 있는 어필을 진상하도록 유도한 한편 궁중에 흩어진 어필을 일정한 전각에 모아두기 시작하였다. 어필은 관청에서 여항에 흩어진 것을 조사하여 수취되기도 했지만 私家에서 반사본을 진상함으로써 궁중에 유입된 경우가 많았다.⁵³⁾ 조선 열성의 목적 외에 왕실에서는 연행을 간 사신과 역관을 시켜 중국 황제의 어필본을 적극적으로 구입하였다. 그 중에서도 明 神宗·毅宗皇帝의 어필을 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였는데, 대명의리론이 팽배했던 영조년간에 많이 수장되었다.⁵⁴⁾ 어진은 승모의 대상일 뿐 감상용으로 쓰이지 않은 반면, 어필은 궁궐의 전각에 게시되어 왕이 소요하며 감상하기도 하였다. 창덕궁의 景薰閣과 暎花堂은 이러한 용도로 쓰인 곳으로, 경춘각에는 중국황제와 숙종의 어필을 걸어두었고 영화당에는 宣祖부터 肅宗에 이르는 열성의 御筆印本을 게시하여 영조가 친히 관람하기도 하였다.⁵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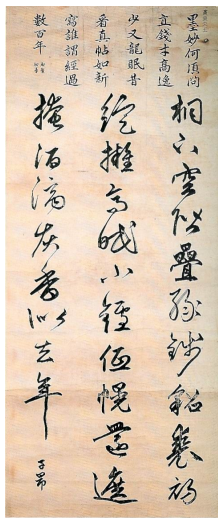
어진과 어필을 제외한 일반 서화가 궁중에 수집된 경로는 훨씬 다양했다. 해외로부터 무역을 통해 유입되었거나, 王命에 의해 궁중화원이 그려서 바친 경우, 종친이나 사가에서 진상한 경우도 있었다. 19세기 서화수장처인 집경당에 중국 및 일본 서화·書譜·지도가 상당수 소장되었던 것은 해외로부터 작품 수입이 활발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53) 어필은 진상한 자는 加資되었거나 포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목적으로 진상한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宣祖의 어필을 위작하여 바친 것이 발각된 경우도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顯宗改修實錄」 卷18 8年 10月 丁亥(條)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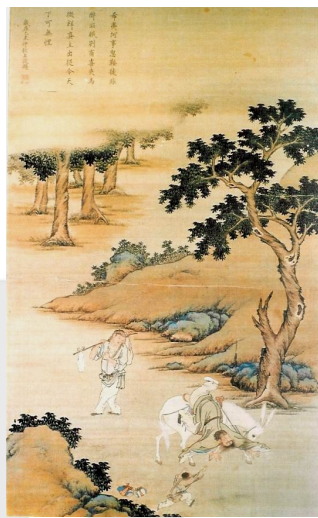
54) 신종황제는 임진왜란 때 조선에 군사를 보내 도와준 인물이고 의종황제는 暎이 망하자 스스로 자결한 인물이다. 조선후기에 이 두 황제는 조선을 구해준 恩人이자 節人으로서 신격화된 존재로 받아들여졌다. 관련 실록기사로 「英祖實錄」 卷8 1年(1725) 10月 癸巳(條); 「英祖實錄」 卷79 29年(1753) 5月 庚午(條) 등 참조

55) 「宮闕志」 「昌德宮誌」 暎花堂銘小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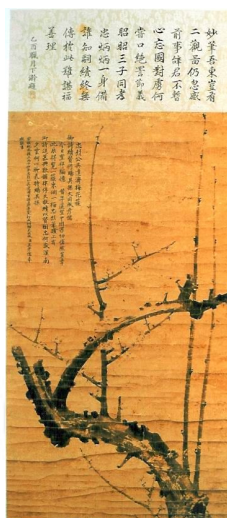
국왕은 특정한 주제를 궁중화가들에게 하사하여 그려 바치도록 하여 궁중 소장품이 증가하는데 일조하였다. 임금이 주로 요구한 주제는 백성들의 생업장면을 그린 <無逸圖>나 <飢風圖>, 중국의 역대 善君과 惡君의 교사를 그린 각종 鑑戒書로서, 군주의 행실과 덕성을 함양하기 위해 왕이 궁중에 비치해 놓고 수시로 감상하기 위함이었다. 조선전기부터 왕실에서 선호하여 적극적으로 수집한 王羲之·趙孟頫의 글씨는 궁중에서 사용할 활자의 범본으로 인쇄되거나 완상용으로 쓰였는데, 원본의 주된 수장처는 교서관이었다.⁵⁶⁾ 다음에 제시된 세 작품은 각기 다른 경로를 통해 조선 후기 궁중에 보관되었던 서화로, 상단에 肅宗의 어제시가 쓰여 있어 御覽用 작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6>.



<그림 4> 趙孟頫, <松雪道人草書>와 肅宗의 題, 56.7×144.5cm, 목판본, 강릉시립박물관 소장



<그림 5> 尹斗緒, <落驢圖>와 肅宗의 題(1715), 17세기, 견본채색, 111.0×68.9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 6> 吳達濟, <墨梅圖>와 肅宗의 題(1705), 17세기, 지본수묵, 104×56.4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56) 『世祖實錄』卷2 卽位年 10月 癸亥條에 의하면 1455년 校書館에 소장된 《集古帖》중에서 조맹부의 <證道歌>, <眞草千字>, <東西銘>과 왕희지의 <東方朔傳>, <蘭亭記>, <雪菴頭陀帖>과 永膺大君 李瑑의 집에 소장된 조맹부의 <赤壁賦> 등의 書本을 인쇄하여 이를 성균관으로 보내 학생들로 하여금 楷範으로 삼게 하였다.

첫 번째로 제시된 <松雪道人草書>는 현종년간에 종친 朗善君 李俱(1637~1693)가 궁중에 바친 조맹부의 글씨 진적을 숙종대에 摹刻해서 간행한 것이고, <落驪圖>는 조선후기 화가 尹斗緒(1668~1715)가 北宋代 陳搏이라는 학자의 고사를 그려서 바치자 숙종이 어림한 것이다.⁵⁷⁾ 그리고 <墨梅圖>는 매화를 잘 그렸던 조선중기 화가 吳達濟(1609~1637)의 작품인데, 王命에 의해 후손가에 보관되었던 것이 궁중에 유입된 경우이다. 그림의 상단 寶相華紋의 비단 위에 쓰인 글이 숙종의 어제어필이고 화면 위에 쓰인 것은 영조의 어제이다.⁵⁸⁾

이렇듯 왕의 주문과 사가의 진상, 무역을 통해 궁중에 유입된 서화작품은 여러 전각에 나누어 보관되었다. 전각 안에 서화를 보관한 방식이라든지 게시해 둔 정황을 상세히 기록한 문헌이 드물기 때문에 그 면모를 세세히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전각별로 작성된 수장목록에 장서와 서화류가 함께 櫥의 層별로 기재되었고 보관 상태를 函 또는 櫃라는 단위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 帖이나 족자 형태로 된 작품을 쌓아두었거나 상자에 두어 칸칸이 비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⁵⁹⁾ 일반서책, 서화 외에 간혹 어진이나 御帖 같이 귀한 자료는 袱·裹(보자기)에 싸 후 궤에 넣어 보관하였다.

왕실에서는 전적을 오랫동안 函에 넣어두었을 경우 습기와 해충으로 인해 상하게 되므로 특정한 일자를 선택하여 曝曬하도록 할 것을 正式으로 삼았다. 그리고 포쇄할 당시 소장된 전적을 재검검하여 다시 소장목록과 形止案을 작성하였다.⁶⁰⁾ 고종년간 궁중에서 포쇄업무를 담당하였던 朴定陽(1841~1905)이 쓴 「박

57) <낙려도>는 왕조의 혼란기를 경험한 북송의 陳搏(진단)이 곧 훌륭한 군주가 나올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기쁨에 못 이겨 나귀에서 떨어졌다는 고사를 그린 것이다. 聖君의 출현과 이로 인한 천하의 안정이라는 주제를 다룬 이 그림은 왕실 어람용 그림의 성격이 잘 반영되어 있다.
58) 吳達濟는 병자호란 때 청에 끌려가 절개를 지켰다는 이유로 충신으로 추앙되었던 인물이다. 영조가 오달제의 墨梅障子를 보고 후손인 吳彦儒에게 題讚을 내려 준 일은 『英祖實錄』 卷88 32年 11月 甲午(條)에 기록되었다 <목매도> 그림 위에 적힌 영조의 어제는 오언유의 글씨이다.
59) 일제시대에 촬영한 태백산사고의 실록각에 자료를 궤에 넣어 쌓아둔 모습, 그리고 현존하는 궤의 모습은 조선 궁중에서 서책과 帖, 卷, 족자로 된 서화를 보관했던 방식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60) 이러한 사실은 규장각과 장서각에 「○○曝曬書目」이라는 제목으로 남아 있는 서목을 통해

학스 포쇄일기 권지단」에 의하면 어필족자와 줌먹은 전적은 따로 櫃에 넣어 보관 하되 그 안에 줌벌레를 죽이는 약초인 川芎과 石菖蒲의 분말가루를 전대에 넣어 두면 독한 냄새 때문에 병충해를 입지 않는다고 하였다.⁶¹⁾ 이를 통해 조선 왕실에서 典籍을 온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자체적인 관리법을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어진과 어필의 경우 엄중한 격식을 지켜 奉安한 의례가 있었던데 비해 일반 장서 또는 서화를 전각에 보관할 때에도 특별한 절차가 있었는지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定員과 承旨, 史官 등 일정한 직책을 가진 대신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살펴서 목록을 작성하고 輸入·流出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 관행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정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곧 전각에 소장된 典籍을 일정하게 살펴계 하는 일은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 약간의 職制가 변화하며 실행되었으며,⁶²⁾ 새로 입수된 것은 왕에게 보고하여 御覽한 후 전각에 수장한 전통이 꾸준히 존재하였던 것이다.

3.2 收藏目錄의 작성

왕실에서는 보관체제를 定式化한 것 외에 작품의 유실을 대비하고 보관상태를 점검할 목적으로 수장목록[書目]을 작성한 것도 수장품 관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⁶³⁾ 목록은 각 전각별로 수장품의 입·출납에 변화가 있을 때, 포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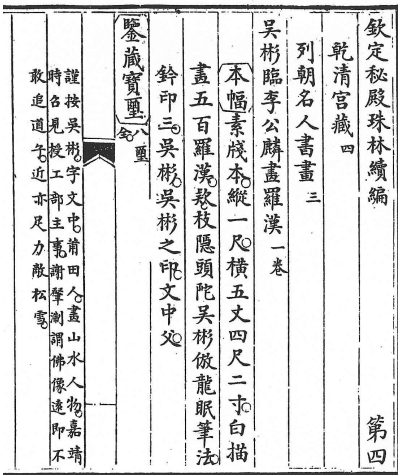
알 수 있다. 포쇄할 때 불완전하게 남은 것으로 확인된 本은 부족한 수를 점검하여 따로 내역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 61) 朴定陽, 「朴定陽全集」 第1冊 「박학사 포쇄일기 권지단」(亞細亞文化社 영인본, 1984), 757. 竹泉 박정양은 26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成均館 大司成 戶曹判書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박학사 포쇄일기 권지단」은 그가 1871년 교종의 명으로 포쇄관으로 발탁되어 전라도 茂朱 赤裳山史庫와 경상도 奉化 太白山史庫에 소장된 전적을 포쇄한 과정을 한글가사로 지은 글이다. 이 글의 譯註本은 崔康賢 譯註, 「조선시대 포쇄일기」(신성출판사, 1999) 참조.
- 62) 「定宗實錄」 卷1 元年(1398) 3月 甲申(13日)條에는 集賢殿의 기능이 유명무실하여 옛 체도를 회복하여 서적을 많이 비치하고 藝文·校書로 하여금 관리하게 해야한다는 趙璣의 上言이 기록되어 있다. 집현전은 1399년 寶文閣으로 개칭되었는데 조선전기의 宮中 圖書館으로 이용되었다.
- 63) 전통시대에는 서책과 그림, 글씨, 지도 등을 모두 한 장소 안에 같이 수장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書目이란 서책의 목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광범위한 개념이다.

할 때 정기적으로 작성하였고 여러 부분을 만들어 기타 전각에도 비치하여 考閱과 유실에 대비하였다.

조선왕실의 목록 작성법은 왕실족보와 어제어필류 같은 왕실자료를 가장 먼저 적고 四部分類인 經·史·子·集部에 따라 서책을 분류하여 기록한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 각 부는 하위항목을 두어 자료의 성격별로 다시 구분하였는데, 서화는 子部の 「藝術部」 또는 「書畫部」로 분류하여 기록한 것이 통례이다. 작품명과 작자, 점검 당시 현존했던 수량이나 결실된 수량을 기록한 것이 전형적

인 기재방식이며, 잘못 기록한 부분에는 삭제기호()를 표기하거나 ‘敬’이라는 붉은 圓形 도장을 찍었다. 이러한 작성법은 서화 작품명을 간명하게 보여준다는 장점도 있지만 제목만 기록되었기 때문에 해당 작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반면 18세기 중국황실에서 작성된 수장목록서를 보면 작품명과 작자, 크기, 내용, 제발, 인장, 작가의 약력이 기록되어 있어 목록서라기보다는 참고서나 저록에 가깝다<그림 7>.64) 다만 중국 황실의 수장목록이 각 전각별로 수장되었던 작품을 모두 한 책에 기록하였으나 조선왕실에서는 각 전각별로 목



<그림 7> 「秘殿珠林續編」의 부분, 清 王杰等編, 1793년 *자금성 건정궁에 소장된 吳彬(明)이 모시한 李公麟(北宋)의 <羅漢圖>에 대한 기록

따라서 제목이 서목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순수하게 서책을 기록한 경우도 있지만 다른 종류의 전적도 함께 수록된 예가 많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혼동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 '서목' 대신 '수장목록'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64) 중국황실에서 이러한 서술방식을 갖추게 된 것은 이미 7세기 裴孝源의 「貞觀公私書史」를 필두로 수장목록을 작성한 오랜 전통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중국 서화수장목록 記述의 변천과정에 대해서는 황정연, 「安岐의 『墨緣彙觀』 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98), 8-31 참조

록을 따로 작성한 것이 차이점이라고 하겠다. 예를들어 18세기 중국황실의 목록서인 「秘殿珠林續編」에는 <그림 7>로 제시된 乾淸宮 뿐 아니라 養心殿·中華宮·御書房 등에 보관되었던 서화작품들도 모두 기재된 반면 조선왕실의 수장목록 중 이렇듯 여러 전각에 소장된 작품을 하나의 목록으로 작성한 예는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궁중의 전적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수장한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고려시대에 이르러 사부분류체계가 도입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⁶⁵⁾ 1116년에 세워진 청연각에 四部의 서적이 가득했다는 「선화봉사고려도경」의 내용을 토대로 이러한 점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 서화수장목록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화를 따로 기입했는지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조선시대로 오면 서화목록이 일찍부터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申叔舟(1417~1475)가 1472년 성종의 명에 의해 찬술한 「永慕錄」은 문헌상 가장 오래된 서화 관련 수장목록으로 파악된다. 「영모록」은 선원전에 봉안된 역대 임금의 어진에 대해 기록한 것으로 아래 신숙주의 서문에 찬술경위가 잘 드러나 있다.

성화8년[1472] 임진년 봄 임금께서 崔涇과 安貴生에게 명하시어 소헌왕후·세조대왕·예종대왕의 쉬용(睟容)을 받들어 그리기를 명하셨으니, 축으로 장황하기를 이미 다 마쳤다. 올해 5월 병진일에 의례를 갖추어 선원전에 선왕선후 다음에 봉안하였다...(중략)...임금께서 또한 선원전에 예전부터 案이 있었는데 단지 봉심하는 절목만 기재되어 있어 순서와 시말을 고증하여 모두 기록할 것을 명하셨다. 태종이상은 세월이 오래되어 다시 고증할 수 없어 단지 그림 모양과 軸數만 기록하였고 세종 이후부터는 상세히 기록하여 바치자 '永慕錄'이라는 명칭을 내려주셨고 등사하여 보관하여 장차 후대에 전하도록 하셨다.⁶⁶⁾

신숙주의 서문에 의해 「영모록」은 어진의 작품수, 형태, 제작경위를 상세하게 기록한 목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화 목록학이 발달한 중국에서조차 18세기

65) 우리나라 四部分類法의 발달에 대해서는 李載喆, “韓國書誌目錄史의 一研究,” 『雀谷論叢』 제7집(성곡문화재단, 1976), 550-59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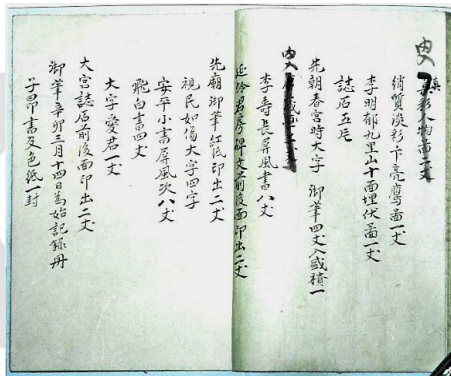
66) 申叔舟, 『保閑齋集』 卷15 「永慕錄序」(『韓國文集叢刊』 10, 民族文化推進會, 1988), 123-124. 신숙주가 「영모록」을 지어 성종에게 바친 사실이 「成宗實錄」 卷8 3年 9月 丁酉(條)에 기록되었다.

「南薰殿尊藏圖像目錄」에 비로소 황제·황후의 초상화가 기록된 것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5세기부터 어진을 목록화 했을 정도로 선왕의 영정을 중요시한 전통이 뿌리 깊었음을 알 수 있다.

「영모록」이 작성된 후 어진을 포함한 궁중 소장 서화목록이 지속적으로 작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17세기까지 작성된 것은 궁궐의 화재로 인해 대부분 소실되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남아있는 궁중 소장목록은 18세기 이후에 작성된 것이 대부분이며, 그 중에서도 대한제국기를 전후로 일제 통감부에 의해 전적 조사가 실시된 1900년대 초에 작성된 목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⁶⁷⁾

현존 서화 관련 소장목록 중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것은 英祖의 소장품을 기록한 「日閑齋所在冊置簿」인 것으로 파악된다.⁶⁸⁾ 이 목록서는 영조가 즉위한지 2년째 되던 해인 1726년, 그의 장남인 孝章世子(1719~1728)에게 소장품을 물려주며 작성한 것이다. 경서류를 먼저 적었고 다음으로 어필어화, 중국과 조선 서화가들의 작품명과 수량을 간략하게 기록하였다.

「일한재소재책치부」는 소장품이 四部체계에 의해 분류되지 않았고 왕실자료와 어필이 기타 서화와 혼합되어 기재된 점에서 18세기 이후에 작성된 궁중 소장목록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그림 8>. 이러한 방식은 1781년 「奎章總目」이 완간된 후 왕실족보와 어필어화를 가장 먼저 기록하고 사부체계에 의해 전적을 분류하여 기록한 방식이 정착되기 전의 목록작성 방식을 보여준다. 생전에 많은 글씨를 남긴 영조의 경우 정조대에 이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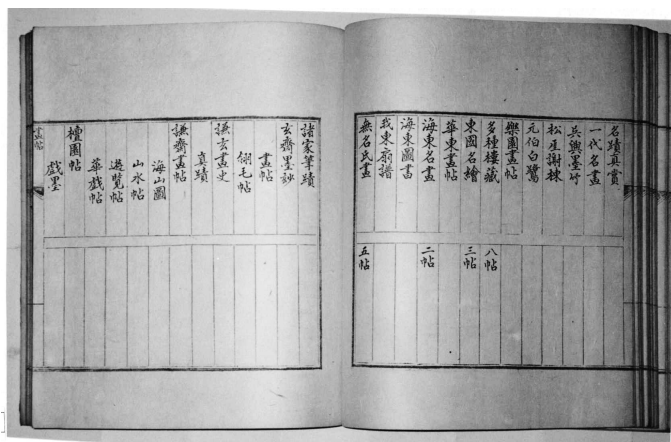
<그림 8> 「日閑齋所在冊置簿」, 1726년, 1冊 12장, 26.9×18.2cm,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67) 千惠鳳(1996), 8-17.

68) 「日閑齋所在冊置簿」는 장서각본이 유일본이다(K2-4917).

리 특별히 그의 목적만 모아 『英祖御筆帖目錄』처럼 단일목록이 작성되기도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어제어필류를 四部의 서책보다 먼저 기록한 것이 상례였다.

조선후기 왕실에서 작성한 각종 수장목록서에는 어필·기타 서화가 약간씩 포함된 예가 많은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전각에 서화를 수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목록들은 서책 위주로 작성되었고 서화는 부수적으로 기록된 측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서화를 서첩·화첩 등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기록한 예는 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종대의 서화수장처였던 승화루의 수장품을 적은 『承華樓書目』은 19세기 왕실에서 도입한 서화분류체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⁶⁹⁾<그림 9>



<그림 9> 「承華樓書目」, 「畫帖」, 1908년 이전 필사 추정, 30.9×21.4cm, 1冊 51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69) 「승화루서목」은 기년이 없으므로 정확한 작성연대는 알 수 없으나 규장각본에 “帝室圖書之章”이 날인되어 있어 1908년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승화루서목」에 대해서는 南權熙 교수가 처음 학계에 소개하여 자세히 구명한 논문이 있다(南權熙, “承華樓書目考,” 『社會科學研究』 3號(慶北大 社會科學研究所, 1987, 63-86). 그 외 이 서목을 다룬 논문으로 李鍾默, “朝鮮時代 王室圖書의 收藏에 대하여,” 『書誌學報』 26號(韓國書誌學會, 2002, 12), 6-39가 있다.

서목의 분류방식을 보면, 서책은 경사자집 사부분류체계를 도입한 것 외에 詩類·文類·筆家類·畫家類·印譜類로 세분화하였으며 서화는 粧橫된 형태에 따라 帖·簇子·橫披·對聯·橫軸으로 나누어 기록하였다.⁷⁰⁾ 그림은 대체로 중국서화 다음 한국서화를 적었고 다시 山水·人物·花鳥·翎毛, 작자미상의 작품 순으로 열거되어 있어 유사한 書目끼리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승화루서목」에서 채택된 서화분류방식은 청 황실의 서화수장목록인 「秘殿珠琳」(1744)과 「石渠寶笈」(1745)의 체제와 상당히 유사하다. 두 목록서 모두 서화작품이 書冊·畫冊·書卷·畫卷·書軸·畫軸 등 粧橫 형태별로 구분하여 작성되었다. 「비진주립」과 「석거보급」은 조선후기 궁중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에 「승화루서목」의 작성자는 중국황실의 수장목록서를 참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19세기 후반에 작성된 궁중 수장 목록서 중 「승화루서목」처럼 서화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기록한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19세기 후반 서화수장처였던 집경당의 수장품을 기록한 「緝敬堂曝曬書目」에는 「書畫部」가 하나의 部로 독립적으로 분류되어 있어 서화를 서적의 범주가 아닌 단일 항목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그림 10>. 「서화부」에는 「金石叢書」·「金石萃編」·「金石跋尾」·「兩漢金石記」 등 금석문 집성류와 趙之謙·吳大澂·何紹基·鄧石如 등 清代 고증학에 영향을 받은 19세기 중국 서예가들의 작



<그림 10> 「緝敬堂曝曬書目」 목차, 19세기 필사, 22.9×21.1cm, 1冊 98장, 서울대 규장각

70) 筆家類와 畫家類는 각각 서예가와 화가가 참조할만한 저록을 기록한 것이다. 횡피는 가로 세로의 길이로 보아 가로가 조금 더 길어 옆으로 겹도록 표구된 형식을 이른다.

품이 다수 기록되어 있어 고종년간 궁중으로 清末 서예작품의 유입이 활발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고종년간 사부분류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한 「서화부」는 1910년 일제가 帝室圖書館의 운영규칙을 정하면서 다시 子部の 「예술류」에 포함되었고 이 때 목록작성 양식도 함께 규정화되어 더 이상 기록방식의 발전을 가져올 수 없게 되었다.⁷¹⁾

조선말기의 수장목록이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고종년간부터 御覽用 목록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때 만들어진 어람용 서목은 唐草·菊花紋 등으로 직조한 황색 비단으로 장정하고 標題의 테두리를 朱絲欄으로 두른 것이 전형적인 모습이다.⁷²⁾ 이러한 현상은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되면서 어람용 의궤의 표지가 황제를 상징하는 황색비단으로 바뀐 변화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한다. 고종대에 황색비단의 어람용 수장목록이 등장한 것은 궁중 도서관 운영을 통해 대한제국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힘쓴 고종의 방침이 투영된 것으로 생각된다.⁷³⁾

조선왕실에서 수장목록을 작성한 전통에 비해 현존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국한되어 있으나, 목록을 바탕으로 궁중 서화수장처의 존재와 옛 궁중 소장의 서화작품에 대해 알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귀중한 소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承華樓書目」과 「緝敬堂曝曬書目」과 같이 서화를 위주로 작성된 목록서는 19세기 궁중에 소장되었던 서화작품의 구체적인 현황을 전해주고, 현존하는 기타 수장품 목록을

71) 제실도서관은 1908년 일제 통감부와 일본인 서지학자들이 참여하여 만든 기구이다. 규장각·홍문관·집옥재·북산산성행궁 등지에 분산되었던 전적을 합쳐 한 곳에 수합해 놓은 것이다. 제실도서관의 운영규칙은 1910년에 발간된 宮內府大臣 官房調査科 編 「宮內府例規」(宮內府, 1910)에 나와 있다. 이 책에 의하면 모든 전적을 公文書類之部·日記類之部·儀軌類之部·雜書類之部로 나누었고 雜書類之部를 다시 經史子集部로 나누어 子部에 藝術類를 두었다.

72) 현존하는 어람용 수장목록 중 국립 중앙도서관 소장 「曝曬書冊目錄」은 19세기 말에 만들어진 어람용 수장목록의 장정형식을 잘 보여준다. 이 서목은 경복궁 건청궁에 속한 長安堂과 곤령합을 비롯한 여러 전각의 서책과 서화를 포쇄할 때 작성한 목록으로 표제의 테두리를 붉은 띠인 朱絲欄으로 돌렸고 황색비단으로 표지를 만들어 어람용임을 표시하였다.

73) 이러한 측면은 고종이 설립한 도서관인 集玉齋의 경영에서도 드러난다. 자세한 내용은 이태진, 「1880년대 고종의 개화를 위한 신도서 구입사업」, 『고종시대의 재조명』(서울: 태학사, 2000), 279-305 참조.

통해 일부만 확인되었던 궁중 서화수장의 면모를 알게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인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조선왕실에 있어서 각종 典籍의 수장은 왕권의 정통성을 상징하고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표방한 고도의 문화정책이었으므로 정권이 바뀌어도 꾸준히 지속되었다.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궁중 서화수장처 건립의 역사적 변천과 이에 따른 수장품의 관리와 용도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서화수장처는 조선전기에는 제대로 施設되지 못하였지만 숙종대인 17세기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조선후기로 갈수록 서화수장처가 관리들이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했던 燕寢 영역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힐 수 있었다.

15·16세기에는 귀중 서화를 별도의 전각을 설치하여 보관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고 대신 왕의 재화와 귀중품을 두던 장소인 內帑庫 또는 왕실문서를 보관하던 隆文樓·隆武樓, 그밖에 圖書樓·校書館 등에 서책과 함께 보관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당시까지는 어진이 각별한 보존대상으로 취급되어 眞殿의 건립이 중요시되었던 반면 어필봉안을 위한 체제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시기였다. 그러나 임진왜란·병자호란을 계기로 어필이 상당수 유실되어 뒤늦게 수집과 印刊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17세기부터는 어필 봉안처인 尊閣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기 시작했다. 숙종년간에 어필봉안을 목적으로 세워진 御製閣·奎章閣·珍藏閣, 영조년간의 敬奉閣·欽敬閣 등은 정조년간 奉謨堂 건립으로 이어져 18세기에 이르면 궁중 서화수장품 중 어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조선후기로 갈수록 眞殿이나 尊閣이 서서히 증설된 현상과 더불어 일반 서화작품을 보관하기 위한 수장처 역시 발달하여 17세기 창덕궁에 건립된 淸防閣을 시작으로 19세기에 본격적인 수장처가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서화수장처로 이용된 승화루나 집경당은 19세기에 서화를 전문적으로 수장한 전각이 등장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실례이자 각기 천여 점 이상의 방대한 서화작품이 수집되었던 대표적인 서화수장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 말 승화루는 純宗의 여가를 위한 탁구장과 총독부 감찰국으로, 집경당은 외국 사신들의 접대장소로 쓰이면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궁중에 수장되었던 서화는 일제강점기 때 상당수 유출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實物로 확인된 작품은 많지 않지만 收藏目錄을 통해 작품명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申叔舟가 찬술한 『永慕錄』에 의해 조선왕실에서는 15세기부터 서화를 목록화한 사실을 알 수 있지만 대부분 소실되었고 지금은 18세기 이후에 작성된 것이 남아 있다. 목록의 기술방식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왕실자료와 기타 서화가 혼합되어 작성되었지만 정조년간 이후 子部의 藝術類로 분류되어 御筆·御書를 먼저 적고 기타 서화를 기록한 방식이 정착되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19세기에는 서화를 단일 항목으로 인식하여 子部가 아닌 ‘書畫部’라는 독립된 部로 설정한 단계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왕실목록서는 조선말기 궁중 서화수장품이 유출되기 직전의 정황을 알려주는 것이자 흩어진 작품의 행방을 조사하기 위한 일차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사료적인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앞으로 궁중 서화수장처의 위치비정과 목록서의 발굴, 舊 왕실 소장 서화작품을 수집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면 조선시대 궁중 서화수장의 면모는 물론 지금은 없어진 궁실전각의 존재와 기능을 좀더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宮闕志』(憲宗代 編).
 『奉謨堂奉安御書總目』. 규장각 소장본, 奎9838-1-3.
 『承華樓書目』. 장서각 소장본(K2-4651)/규장각 소장본(奎9875~8).
 『緝敬堂曝曬書目』. 규장각 소장본, 奎11704.
 김지영. “肅宗·英祖代 御眞圖寫와 奉安處所 확대에 대한 고찰” 『奎章閣』27.

서울대 규장각(2004). 55-76.

南權熙. “承華樓書目考.” 『社會科學研究』 3號. 경북대사회과학연구소. 1987. 63-86.

李鍾默. “朝鮮時代 王室圖書의 收藏에 대하여.” 『書誌學報』 26號 한국서지학회 (2002). 6-39.

千惠鳳. “奉謨堂考.” 『國會圖書館報』 제10권 2호(1973). 5-21.

黃晶淵. “朝鮮後期 宮中 御筆 收藏 과 印刊.” 『藏書閣』 제12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12). 215-264.

_____. “19세기 宮中 書畫收藏의 형성과 전개.” 『美術資料』 70·71호. 국립중앙박물관(2004, 12). 131-14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편. 『藏書閣의 歷史와 資料的 特徵』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